



5·18 묘지 가는 길의 이팝나무꽃 5·18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어지는 길에 이팝나무가 꽃을 피웠다. 광주시는 1994년 5·18묘지를 조성한 후 이듬해 5월에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를 묘지 진입로에 대대적으로 심었다. 이팝나무는 이팝(썰방)이 어원이라는 설도 있어, 주먹밥을 나누던 5·18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연합뉴스

전남 관광객 6000만 시대... SNS가 선봉

6개 매체서 '남도여행길잡이' 서비스

전라남도가 관광객 6000만 명시대를 여는 선봉장으로 관광SNS를 앞세워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전남으로 이끌고 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관광SNS는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총 6개 매체다. 모두 '남도여행길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영상콘텐츠가 빠르고 역동적으로 전남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로 인식하고, '영상전문기자단'이란 새로운 시도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관광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관광SNS기자단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전남의 관광자원을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하는 영상기자단으로 구성됐다.

영상기자단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는 유튜브 '남도여행길잡이'에는 항공촬영을 통해 빼어난 솜씨로 담아낸 '신안 입자도 톨립축제', '여수 영취산 진달래의 풍경' 등 영상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광SNS를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이벤트도 관광객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40명에게 커피쿠폰 경품을 제공한 유튜브 '남도여행길잡이' 구독이벤트에는 600여 명이 참가했다.

오는 16~22일에는 유튜브 '남도여행길잡이' 댓글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자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며, 페이스북 '남도여행길잡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양방향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해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양방향으로 빠르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해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광SNS 기자단 발대식.

오늘의 날씨

5월 14일 (화)
음력 : 4월 10일

수도권 날씨
26~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4 | 해질 / 19:33

백령도 9/19, 파주 11/26, 서울 14/26, 양평 12/27, 연천 10/27, 동두천 12/27, 가평 10/27, 인천 13/22, 수원 13/27, 용인 13/27, 평택 12/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북, 말산업에 86억 투자

승마산업 활성화·저변 확대 나서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 추진
유소년단 창단·대회 신규 개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공포

전라북도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말산업 육성과 승마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선다

전북도는 그간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말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5개 시·군이 전국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차별화된 말산업 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0여 명의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3억여 원을 지원하고, 5개소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해서는 1억6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해 기존의 2개 전국승마대회 외에 전라북도 도시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신규 개최할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 지원예산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60억 원이 투자계획이며, 익산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김제 벽골제 말도피아체험관 조성, 완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 및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전라북도 이성재 축산과장은 "말산업은 1차생산에서 3차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산

업으로 이번 조례제정과 함께 향후 전라북도가 말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전북도의회 개최 기간에 말산업특구 5개 시·군 도의원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발의해 의결됐으며 5월 3일자로 공포됐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말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봉채영 기자

bcy2020@

metroseoul.co.kr



전남교육청, 1999년에 묻은 타임캡슐 대공개

영·호남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 성장과정 다큐 상영 등 행사 다채

전라남도교육청이 20년 전 묻은 영·호남 학생 '꿈과 우정의 타임캡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담양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개봉한다. 같은 시각 경상남도교육청도 경남 의령 소재 경남학생교육원에서 역시 20년 전 묻은 타임캡슐을 연다.

이날 전남교육청 타임캡슐 개봉행사에는 20년 전 타임캡슐에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를 봉인했던 주인공 50여 명(전남 44명, 경남 1명과 가족 등)이 성인이 된 모습으로 참석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세월의 흐름을 직접 보여준다.

또한,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현 전남교육청 관계자와 경상남도교육청 김상권 학교정책국장과 장학사, 20년 전 타임캡슐 봉인행사를 추진했을 당시의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20년만의 개봉을 축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남교육연수원 앞 마당에서 타임캡슐을 발굴한 뒤 200강



1999년 봉인된 타임캡슐.

당으로 옮겨 개봉식을 가진다. 개봉식은 식전공연과 경과보고, 교육감 인사말, 내빈 축사, 개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봉식에서는 당시 전남과 경남의 약속카드 주인공 두 명이 자신들이 만들었던 약속카드를 낭독하고, 또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마련돼 있다. 타임캡슐 주인공 중 한 명의 20년 동안 성장과정을 담은 영상물도 상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지난 1999년 5월 26일 영·호남 학생들의 우정을 나누고, 새천년 주역이 되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타임캡슐을 봉인해 전

남교육연수원과 경남학생교육원(당시 경남덕유교육원 의령분원) 앞마당에 각각 묻었다.

이 캡슐에는 당시 전남과 경남의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1072명(전남 559명, 경남 513명)의 꿈과 희망이 담긴 약속카드가 봉인돼 있다. 이들은 카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혈액형, 자기소개, 장래희망, 20년 후의 나의 모습, 경남(전남) 친구에게 바라는 글 등을 B5 크기 용지에 작성한 뒤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로 코팅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개봉한 타임캡슐과 약속카드를 전남과학교육원에 임시 보관한 뒤 전남교육박물관(가칭, 설립 예정)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표지석은 원래의 자리인 전남교육연수원에 보관한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4월 TF를 꾸린 뒤 타임캡슐 개봉을 준비해왔으며, 공개적으로 당시 약속카드를 작성했던 주인공 찾기에 나선 결과 300여 명의 소재를 확인했다. 이들은 30대 초반의 성인이 되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봉채영 기자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전 돌입

익산시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서는 등 국비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익산시 정현울 시장(사진)은 지난달 22일 중앙부처를 찾는데 이어 13일에 다시 중앙부처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익산시의 주요 현안 사업을 추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순회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사회에



산심서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도로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물통합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 핵심 간부

들을 중심으로 익산시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정 시장은 중앙부처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후배와 동료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 향우회

와 지역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한 예산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날 중앙부처 설명에 나선 현안사업은 세계적인 식품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5000억 원)의 조속한 추진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162억 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남산~연무IC)(1829억 원) 등이다.

정현울 시장은 "정부의 국가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봉채영 기자